홀로스평생교육원
심층 의식으로부터 깊은 지혜를 이끌어 내는 통찰력게임

• 발행: 이원규 • 편집: 김연주
• 주소 : 서울 사무실: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68 (청룡동) 혜남빌딩 4층
함양 연수원: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53-74
• 전화: 02) 747-2261 • 팩스: 02) 747-3642 • 이메일: cpo@herenow.co.kr

통찰력게임 소식지

2018년 8월 (제 16호)

예상, 개인을 넘어서다

우리의 경험이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집단 무의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상豫象(미리 마음에 그림이 떠오르다)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의미하는 바'를 경험적으로 자각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험적'이라는 것이 개인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집단무의식을 포함한다면,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의 예상은 인류적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주제가 '나'에 한정되지 않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 내가 속한 단체에 속하거나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예상도 집단적, 인류적이 될 것이며, 그때 우리의 더 깊은 집단무의식은 더 잘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게임의 주제가 더 넓고 포괄적이라면 거기에 사용되는 경험은 개인을 넘어 집단적이 되고 인류적 경험의 무의식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원규[1] 두손

목차

다가오는 강좌 소개 / 2쪽
통찰력게임 딜러 • 마스터 동정 / 3쪽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책《섬광처럼 내리꽂히는 통찰력》/ 4~5쪽

1)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 《관성을 넘어가기》 저자. 통찰력게임 개발 및 제작.

다가오는 강좌 소개

● 제 9차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 교육



통찰력 미니게임은 통찰력게임의 퀵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한 것이며, 3~4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일시: 2018년 9월 8일(토) 오후 1시 ~ 6시
· 장소: 서울 강의장
· 신청하기: PC에서는 여기를 클릭!
스마트폰에서는 여기를 클릭!

● 제 20차 통찰력게임 딜러교육



통찰력 시범게임을 직접 진행하고 키트 판매도 할 수 있는 '본게임 안내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재수강은 무료이며(자기변형게임 딜러도 가능), 미니게임 안내자 교육도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참가비: 무료 (단, 키트 5개 신규 구입자에 한함, 35만원)
· 장소: 서울 강의장
· 신청하기: PC에서는 여기를 클릭!
스마트폰에서는 여기를 클릭!

● 제 22차 통찰력게임 워크숍



통찰력게임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미세하게 올라오는 무의식적 신호를 알아채고 통찰로 이어지게 하며, 그 통찰을 실현시킬 힘을 얻게 합니다.

·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2시 ~ 14일(일) 오후 5시
· 장소: 홀로스 함양연수원 (최대 6명)
· 신청하기: PC에서는 여기를 클릭!
스마트폰에서는 여기를 클릭!

● 통찰력게임 특별 워크숍



문성희 선생의 '평화가 깃든 밥상' 마스터들을 위한 통찰력게임 워크숍이 10월 5일에서 7일까지 2박 3일간 미내사 함양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그룹으로 신청하시면 그 팀만을 위한 워크숍도 가능하니 많이 신청해주세요.(문의 02-747-2261)

통찰력게임 동정動靜

*통찰력게임 마스터/딜러분의 근황을 알려주시면 (진행 강좌나 책 발간 등) 본란에 게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부로 연락 주십시오. cpo@herenow.co.kr

● 제 8차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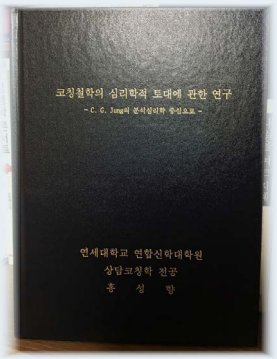
지난 7월 14일(토) 미내사클럽 서울강의장에서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참가자들의 참가 소감입니다.



나의 주제에 대해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한 후에도 또 다른 감정 · 단어 · 주제가 떠오르면서 나를 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순차적으로 한 계단 오르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커질 것 같다. 내가 '선택한다는' 중요한 습관을 배우게 되었다. 실패가 아니라 그 또한 내가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 반야

시범게임에 참가해보고 궁금해서 게임키트를 구매하고 수업을 신청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미니게임을 진행해 보니 제대로(?) 정석 통찰력게임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기대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 마음들이 숨죽이며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서는 제 마음들 이야기 듣는 연습을 게임을 통해 더 도움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 쏭

● 코칭철학의 심리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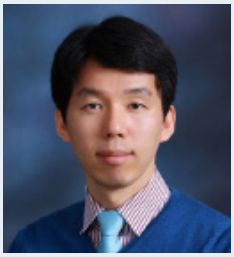
홍성향 통찰력게임 마스터(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 전공)의 석사 논문 '코칭철학의 심리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가 일차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통찰력게임의 깊은 의미가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논문은 칼융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특히 무의식의 신호를 의식화하여 사용하는 통찰력게임에 대한 측면이 코칭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이는 칼융의 집단무의식 이론과 잘 매치됨을 느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마스터 • 딜러분들의 8월 게임 일정

(다른 마스터/딜러분들도 9월 게임 일정이 정해지면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 이혜영 마스터
- 통찰력게임 딜러교육
  8/3(금) 10:00~18:00
- 통찰력게임 워크숍
  8/18(토) 10:00~18:00
- 지역: 서울 김포공항 쪽
- 문의 010-5323-4893



- 홍인표 마스터
- 통찰력게임 워크숍
- 일정: 8월 중하순
  (전화로 협의)
- 지역: 강남/선릉
- 문의 010-9270-4002



- 박은경 딜러
- 자기변형 시범게임
- 일정: 신청자와 협의 후 진행
- 지역: 수원 영통, 경기 분당
- 문의 010-2901-0165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16) 게랄드 트라우페터

경험이 순식간에 재조정되다

저자는 샬호른 소방관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리에 대한 세밀한 무의식적 구분이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린 사건을 통해, 급박한 순간에 그 모든 경험들이 재조합되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한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무의식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과연 어떻게 무의식이 보내오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통찰력게임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편집자 주).

샬호른은 신참 시절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화재 현장을 기억하고 있다. 그 사건으로 그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클라인의 선택결정 모델을 설명하기에 딱 맞는 상황이었다. 함부르크의 알스타하우스로부터 샬호른이 속해 있던 팀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알스타하우스는 함부르크의 가장 화려한 백화점이자 빈넨알스타 구역의 상징이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물이기에 그곳의 화재경보는 끊임없이 울려 댔다. 하지만 출동을 하고 보면 번번이 백화점 입구의 쓰레기통에 불이 났거나 잘못 울린 경보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짜 화재였다.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불길이 백화점의 위엄을 자랑하는 나무 계단에서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진땀을 흘리며 계단 앞에 서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는 아직 젊고 열정에 불탔으며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가 계단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이미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배 소방대장이 손을 뻗으며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나무 계단이 쩍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사방으로 불꽃이 흩날렸다.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갔더라면 아마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겠지요.”라고 샬호른은 당시를 회상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소방관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젊은 지망생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

고온의 영향을 받아 나무가 하중을 견디는 힘은 물리학과 화학이 함께 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다. “뇌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도 부족한 상황, 초를 다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말입니다.”라고 샬호른은 말한다. 불타는 계단을 이용한 진입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쓰는 방법이며 소방관들은 그것을 ‘중앙공격’이라고 부른다. “그대로 돌아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위층에 아이 두 명을 포함한 전 가족이 연기에 질식

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선배 소방대장은 무엇을 감지했던 것일까? 그의 육감은 무슨 낌새를 알아차렸던 것일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열쇠는 나무가 타면서 내는 소리에 있었다. 처음에는 섬유층들이 터지면서 특유의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마치 호수 위의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비슷하며 나무 계단이 무너질 때 내는 둔중한 소리와는 구별된다.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나무가 부러지는 강도이다. "그 소리를 이미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계단에 올라서기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라고 샬호른은 말한다.

《섬광처럼 내리꽂히는 통찰력》 중에서

(게랄드 트라우페터 지음, 노선정 옮김, 살림Biz)

